

영유아기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초기 청소년기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 아동기 부모 공동양육 수행의 매개효과

한단비¹⁾ 최지은²⁾ 김현경³⁾

요약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을 이용하여 자녀의 영유아기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자녀의 초기 청소년기 집행기능에 중단적으로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아동기 동안 부모 공동양육의 수행(아버지의 양육분담률, 가족 유연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미치는 간접적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영유아기에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은 아동기 아버지의 양육분담률을 높이고 가족 유연성을 증진시켰으며, 가족 유연성 증진을 통해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집행기능 향상에 미치는 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가족에 미치는 실증적 효과와 그 기제를 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는 현존하는 제도를 아버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 공동양육, 아버지 양육분담률, 가족 유연성, 자녀의 집행기능

I. 서론

가족친화제도란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병행을 돕기 위해 직장 내에서 사용하는 제도로,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전제하고 있다(법률 제

1)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2)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연구교수

3)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융합전공 교수

17438호, 2020.06.09., 일부개정). 현재 우리나라에서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 제도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등이 있다. 한편 최근 통계청(2023)에서 발표한 한국의 합계출생률은 0.78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남성 대상의 가족친화제도는 가족 내 남성의 역할을 지원함으로써 전통적인 성별 분업을 완화시키고 저출생 극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최지은·김현경, 2019). 그러나, 정책적 노력과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로 인해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음에도(고용노동부, 2020), 여전히 많은 아버지들이 직장 내 유·무형의 장애물로 인해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아직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 짓는 성별 분업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며(나성은, 2014), 특히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의 원인으로 가정 내 무급노동의 불평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머니투데이, 2022.04.22.). 가족친화제도의 선구자 격인 북유럽 국가에서는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증진시키고 어머니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Datta Gupta, 2008). 또한 강한 가부장적 전통을 가진 국가로 평가되던 독일은 공동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책임을 강조하고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한 바 있다(박채복, 2018).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이 가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가족친화제도 이용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아버지 직장에서 많은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을 높이는 데에 직·간접적인 도움이 되며(김진욱·강상준, 2018; 이숙현·권영인, 2009), 직장의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는 아버지의 양육책임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안수영·이명신, 2020). 그런데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아버지의 낮은 제도 이용률, 자료의 제한 등으로 인해 가족친화제도 “시행 여부”의 횡단 효과에 초점을 두었다.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의미하여 아버지의 양육이나 공동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최지은·이지원·김현경, 2021),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검증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제도 이용의 영향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가족친화제도의 효과로써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의 증가에 초점을 두었다. 그런데 부모 공동양육에 있어서는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두 부모 간 양육의 조화 수준, 가족체계의 유연성 등 질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강조된다(Feinberg, 2003). Van Egeren과 Hawkins(2004)는 부모 공동양육을 공동양육의 상대적 양에 해당하는 양

육참여의 분담 정도(shared parenting), 질적인 공동양육에 해당하는 배우자 간, 부모-자녀 간 긍정적 상호작용(coparenting solidarity), 배우자의 양육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부정적 상호작용(undermining coparenting)과 같은 요인들로 구성된다고 정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Feinberg(2003)는 가사 노동의 분담정도(devision of labor), 자녀 양육에 대하여 부모가 서로 동의하는 정도(childrearing agreement), 배우자에 대한 지지 혹은 비난 정도(support-undermining) 등을 부모 공동양육의 하위 요인으로 보았으며, 가족 내부나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가족의 유연성이 높은 경우는 부모가 가사 및 돌봄 노동의 문제를 서로 조절하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부모 공동양육이 잘 이루어지는 주요한 특성으로 가족 유연성이 있다고 하였다.

정리해보면 공동양육을 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동양육의 양적 요인과 질적 요인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동양육의 양적 요인인 양육참여의 분담 정도는 두 양육자 사이에 양육이 얼마나 공평하게 분담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나성은(2014)은 자녀 양육에 적극적인 아버지들이라 하더라도 양육분담은 그들의 인식만큼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양육의 불공평한 분담은 개인의 생활만족과 결혼만족을 낮춤으로서 가족의 복지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고(김주현·문영주, 2010; 유계숙·강수향·오아림 외, 2011), 반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평한 양육분담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갈등과 같은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의 기능을 원활하게 돕는 완충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홍예지·이순형, 2017). 오늘날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과 참여도가 이전에 비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고용노동부, 2020), 돌봄과 가사 일 등 가족 내 무급노동 분배의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머니투데이, 2022.04.22.; Zamarro & Prados, 2021), 아버지의 양육분담률이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공동양육의 질적인 측면인 가족 유연성은 공동양육을 수행하는 부부가 내부 또는 외부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역할관계 및 규칙 등을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하며(Olson, 2000), 이는 일과 가족역할 간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의미하는 일-가족 향상(enrichment)을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Greenhaus & Powell, 2006). 즉, 적절한 수준의 가족 유연성을 가진 가족은 안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변화에도 개방적이어서 가족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Olson, 2000). 두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공동양육 상황에 있어서도 부모가 유연성을 가지고 서로의 역할을 조정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가족 유연성은 발달속도가 빠른 아동기 자녀가 있는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가족기능에 더욱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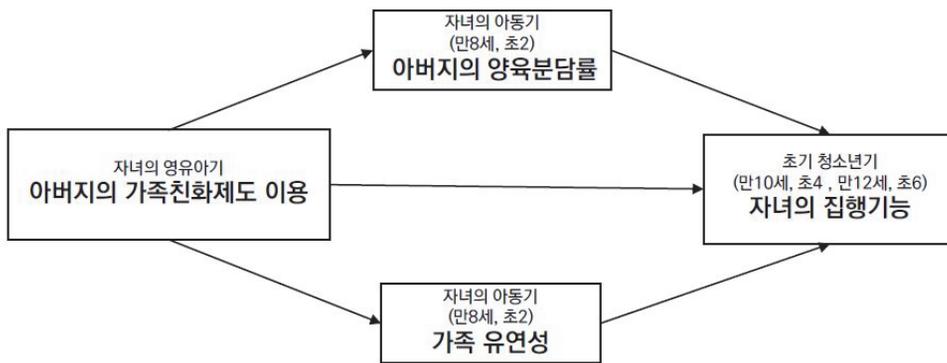
력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 공동양육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 요인으로 (1) 공동양육의 양적 측면인 아버지의 양육분담 정도(이하 아버지 양육분담률)와 (2) 공동양육의 질적 측면에 해당하는 가족의 변화에 대한 대처와 적응의 유연성(이하 가족 유연성)을 설정하였다.

한편, 부모 공동양육의 요인들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최근 연구에서는 공동양육이 자녀의 행동적 자기조절 능력에 해당하는 공격성을 감소시켰고(임현주, 2021), 정서적 조절 능력에도 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이지원·최지은·김현경, 2020). 자신의 인지, 행동, 정서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은 집행기능에 해당하는데(Diamond, 2013), 이는 초기 아동기인 만 5세부터 뇌의 전두엽이 급격히 발달하는 청소년기까지 주요하게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st & Miller, 2010; Blakemore & Choudhury, 2006). 집행기능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행동통제, 계획수립, 정서인식 등에 문제를 겪게 되고 이는 결국 학교 적응, 또래관계 및 목표 지향적 행동에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밝혀져(Cohen & Jay, 2005; McClelland, Leve, & Pears, 2016), 집행기능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중요한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초기 청소년기에 이르는 시점의 집행기능 발달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집행기능 발달의 가소성이 높은 아동기(Anderson, 2002)를 거쳐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가족친화제도조차 아버지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독려하고 자녀에게 양질의 가정환경 제공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자녀의 초등학교 이전 시기는 부모와 애착이 형성되고 양육환경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 시기로 이 시기에 아버지가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한 것의 효과가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초기 청소년기(Blum, Astone, Decker et al., 2014)에 이르러서까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면 정책입안자에게는 제도의 지원수준 강화를, 정책이용자에게는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설득하는 데에 강력한 근거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이용 정도가 부모의 공동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자녀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을 확인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더욱 독려하고 자녀에게도 양질의 가정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에 대한 대표성 있는 장기종단조사인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 전에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남성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유연근무제, 대체인력풀 운영,

가족친화관련프로그램)이 아동기 부모 공동양육의 하위요인(아버지의 양육분담률, 가족 유연성)과,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집행기능 발달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과 더불어, 아동기 동안 부모 공동양육의 다양한 하위요인을 증진시킴으로써 자녀의 집행기능 발달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자녀의 영유아기에 아버지가 많은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아동기(초등 2학년) 부모의 공동양육(아버지의 양육분담률, 가족 유연성) 수준을 증가시키는가?
2. 자녀의 영유아기에 아버지가 많은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초기 청소년기(초등 4학년, 초등 6학년) 자녀의 집행기능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가?
3. 자녀의 영유아기에 아버지가 많은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아동기(초등 2학년) 때의 부모 공동양육(아버지의 양육분담률, 가족 유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초기 청소년기(초등 4학년, 초등 6학년) 자녀의 집행기능을 간접적으로 증가시키는가?



[그림 1] 연구 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아동 양육기 가구에 대한 종단 데이터인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인 영유아기에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녀의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아동패널 8차(2015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부

모 공동양육은 아동패널 9차(2016년)에서, 자녀의 초기 청소년기 집행기능은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에 해당하는 아동패널 11차(2018년)와 13차(2020년)에서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중인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의 효과를 엄격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 이용 여부를 질문했던 8차년도부터 결과변수가 수집된 13차년도까지 아버지가 미취업 상태라고 응답했던 적이 있는 경우(15.8%)를 제외하였으며, 부모 공동양육으로 인한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8차년도에 두 부모가 함께 살지 않은 경우와(4%), 또 다른 공동양육자가 되기 쉬운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11.8%)를 제외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1차년도에 시행한 발달검사결과 발달지체가 의심되는 경우(5.2%)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총 763가구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연령이 각각 40.2세($SD = 3.86$), 37.76세($SD = 3.59$)였고 약 80%가 만 35~45세 미만에 해당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각각 44.3%, 39.6%로 가장 많았다. 가구 월 평균 소득은 평균 471.99만원($SD = 203.42$)이었으며, 아동 성별은 남아 53.2%, 여아 46.8%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가.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의 아버지용 설문 중, 출산 및 육아지원제도 및 방식의 시행 및 이용 여부 질문을 사용하였다.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에 대한 질문은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설문에서 처음 이루어졌고, 질문에서 이용 시기와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과거의 이용 경험을 질문하였기 때문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이전 시기의 이용 경험을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6가지 가족친화제도(여성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유연근무제, 대체인력풀 운영, 가족친화관련프로그램)의 시행 여부를 질문한 뒤에 시행한다고 응답한 경우 여성 육아휴직을 제외한 5가지 제도 각각의 이용 경험 여부를 질문하였다. 각 제도를 이용했을 경우를 1로 코딩하였고, 시행하지 않은 경우, 시행했으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시행했으나 이용대상이 아님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모두 0으로 코딩한 후 값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점수범위 0~5).

나. 부모 공동양육

매개변수인 부모 공동양육은 9차년도에 측정된 어머니 대비 아버지의 양육분담률, 가족 유연성 두가지로 파악하였다(Feinberg, 2003). 첫째, 아버지의 양육분담률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질문한 설문에서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ECLS-K)의 Home Environment Activities, and Cognitive Stimulation(HEQ)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부모-자녀 상호작용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지난 1주일 동안 총 10가지 활동을 자녀와 얼마나 자주 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준다.” 등),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하지 않음(1), 1~2번(2), 3~6번(3), 매일함(4)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전혀 하지 않음(0), 1~2번(1.5), 3~6번(4.5), 매일함(7)으로 재코딩한 뒤, 다수의 무급노동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분담률 계산 공식을 적용하였다(오성은·김한성, 2020; 정주원·조소연, 2015). 즉, 문항별로 “아버지 응답값/(어머니 응답값+아버지 응답값)”으로 계산한 뒤 이에 대한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수 범위는 0부터 1이며, 0은 아버지는 전혀 하지 않고 어머니만 하는 경우, 1은 어머니는 전혀 하지 않고 아버지만 하는 경우, 0.5는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분담률이 높은 것이다. 10문항의 분담률 점수의 Cronbach's α 는 .85였다.

둘째, 가족 유연성은 9차년도 어머니용 설문에서 Olson(2010)이 개발한 가족상호작용(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V [FACES IV])척도 중 균형 있는 유연성(balanced flexibility)영역으로 측정하였다. 균형 있는 유연성 척도는 가족리더십과 역할 관계, 그리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우리 부부는 동등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 가족은 필요할 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등)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아버지 양육분담률과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변수들의 측정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추천된 공식을 이용하여(Little, 2013) 7점 척도로 변환한 후 이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척도의 Cronbach's α 는 .79이었다.

다. 자녀의 집행기능

종속변수인 자녀의 집행기능은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11차년도와 13차년도에 측정된 송현주(2014)가 개발한 집행기능 곤란(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Screening Questionnaire)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1차년도에는 어머니가 응답하였고, 13차년

도에는 동일한 내용을 아동이 직접 응답하였다. 하위영역은 계획-조직화 곤란 11문항(“무슨 일이든 시작하기를 힘들어 한다.”,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어려워 한다.” 등), 행동통제 곤란 11문항(“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너무 거칠게 행동한다.” 등), 정서통제 곤란 8문항(“사소한 일에도 화를 쉽게 폭발한다.”, “상황에 따라 기분 변화가 심하다.” 등), 부주의 10문항(“자신의 물건을 챙기지 못해 여기저기 흘리고 다닌다.”, “방의 정리정돈을 못한다” 등)의 4가지로,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아니다(1)부터 자주 그렇다(3)의 3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집행기능이 좋은 것을 의미하게 하였다. Cronbach's α 는 11차 .95, 13차 .94로 나타났다. 최종 분석에는 11차와 13차의 평균값을 평균내어($r=.26, p<.01$) 사용하였다.

라. 통제변수

가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인 자녀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자녀의 성별, 1차년도에 측정된 자녀의 인지 검사 점수, 부모의 교육수준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또한 공동양육의 독립적인 효과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양육참여 정도를 종속변수인 자녀의 집행기능에 대해 통제하였다. 이는 아버지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영향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기 때문이다(McKelly & Rochlen, 2016). 매개변수인 공동양육에 대하여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아버지의 직장 근무시간을 통제하였다. 직장 근무시간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공동양육을 촉진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의 대표적인 지표로써(Thompson, Beauvais, & Lyness, 1999), 가족친화제도 이용 자체의 독립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포함하였다. 독립변수인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에 대하여는 부모의 맞벌이 여부를 통제하였다.

자녀 성별은 남아 1, 여아 0으로 코딩하였다. 영아기 인지 검사 점수는 1차년도에 측정된 K-ASQ 문제해결 능력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발달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8차년도에 측정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응답 무학(0)~대학원졸업(7)을 평균 내어 사용하였다($r=.62, p<.01$). 어머니의 양육참여 정도는 9차년도 어머니용 설문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 척도 10문항을 이용하였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하지 않음(1), 1~2번(2), 3~6번(3), 매일함(4)으로 응답한 값을 평균을 내어 분석에 활용하였다(Cronbach's $\alpha=.82$). 부의 직장 근무시간은 한국아동패널에서 이용 가능한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아버지가 응답한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값을 평균 내어 사용하였다($r=.27\sim.46, p<.01$). 부모의 맞벌이 여부는 부 외벌이(0), 맞

별이(1)로 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모 외별이는 사례가 거의 없어(1.8%)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데이터는 SPSS 25와 Mplus 8(Muthén & Muthén, 1998-2017)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고 연구 변수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에는 SPSS 25를 이용하였다. 이후 Mplus 8을 이용하여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의 이용이 부모 공동양육과 자녀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의적 표본 추출을 통해 통계수치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부트스트랩을 5000회 실시하였고, 95% 신뢰구간 안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MacKinnon, Lockwood, & Williams, 2004).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0.06 이하, Comparative Fit Index(CFI)와 Tucker-Lewis Index(TLI) 0.95 이상일 경우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였다(Hu & Bentler, 1999). 부모 교육수준과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 아버지의 직장 근무시간 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였고, 부모 맞벌이 여부와 어머니의 양육참여 정도, 아버지 양육분담률, 가족 유연성, 아버지의 직장 근무시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참여 정도와 아버지의 양육분담률, 가족 유연성 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였고, 아버지의 양육분담률과 가족 유연성 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였다. 본 연구변수의 결측률은 최대 13.76%로,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여 일부 변수에 결측이 있는 케이스도 모두 분석에 포함하였다(Enders & Bandalos, 2001; Little, 2013).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 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아버지들이 이용한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는 5개 중 평균 0.12개로 나타났으며, 가족친화제도 이용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705명의 아버지 중 7.1%에 해당하는 50명의 아버지들이 하나

이상의 제도를 이용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에서 23명은 두 개 이상을 이용하였다. 제도 별 이용률은 남성 육아휴직 4.3%, 가족돌봄휴직 1.5%, 유연근무제 3.1%, 대체인력풀 2.0%,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이 2.5%이었다. 아버지의 양육분담률은 평균 0.37로 두 부모의 양육참여 양 중 절반 미만인 37%를 아버지가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유연성은 1~7점 범위 중 평균 5.01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인 자녀의 집행기능은 1~3 점 범위 중 평균 2.5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자녀의 영아기에 측정된 인지 검사 점수는 30~60점 범위 중 평균 56.96점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교육수준은 0~6 범위 중 평균 4.35이었다. 어머니의 양육참여 정도는 1~4점 범위 중 평균 2.10점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맞벌이 여부는 맞벌이 가구가 44.4%로 나타났고, 부의 직장 근무시간은 주당 평균 53.45시간이고 최대 주당 110시간까지 분포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모든 연구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표 2>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은 공동양육의 양적 측면인 아버지의 양육분담률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공동양육의 질적 측면인 가족 유연성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가족 유연성은 종속변수인 자녀의 집행기능과도 강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양육분담률과 가족 유연성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자녀의 성별과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양육참여 정도는 자녀의 집행기능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직장 근무시간은 독립변수인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 정도와 부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매개변수인 아버지의 양육분담률, 가족 유연성과도 부적인 상관이 있었다.

<표 1> 연구변수의 기술통계 (N = 763)

변수	평균	표준편차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 정도 (0-5) ¹	0.12	0.51
공동양육	아버지 양육분담률 (0-1)	0.37
	가족 유연성 (1-7)	5.01
자녀의 집행기능 (1-3)	2.54	0.82
자녀 성별 (1=남, 2=여)	1.47	0.27
자녀 영아기 인지 검사 점수 (30-60)	56.96	0.50
부모 교육수준 (0-6)	4.29	5.36
어머니 양육참여 정도 (1-4)	2.10	0.86
부의 직장 근무시간 (0-110)	53.45	0.47
부모 맞벌이 여부 (1=맞벌이, 0=부 외벌이)	0.45	10.45
		0.50

주 1 괄호 속 숫자는 점수 범위를 의미함.

〈표 2〉 연구변수의 상관관계 (N = 763)

	1	2	3	4	5	6	7	8	9	10
1										
2	.07									
3	.08*	.09*								
4	.02	.02	.23**							
5	-.02	.04	-.04	.15**						
6	.01	.05	.03	.03	.01					
7	.04	.08*	.25**	.15**	-.02	-.04				
8	.05	-.35**	.34**	.14**	.03	.00	.08*			
9	-.09*	-.08*	-.17**	-.01	-.00	.02	-.21**	-.02		
10	.02	.13**	.06	-.00	.00	.03	.11**	-.10*	.01	

* $p < .05$, ** $p < .01$

1.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 정도, 2.아버지 양육분담률, 3.가족 유연성, 4.자녀의 집행기능, 5.자녀 성별, 6.자녀 영아기 인지 검사 점수, 7.부모 교육수준, 8.어머니 양육참여 정도, 9.부의 직장 근무시간, 10.부모 맞벌이 여부

2.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아동기 부모 공동양육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검증을 위한 분석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chi^2 = 351.01(df=30, p < .001)$, RMSEA 0.01(90% CI 0.00-0.03), CFI 0.99, TLI 0.99으로 양호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은 부모 교육수준과 부의 직장 근무시간을 통제한 이후에도 부모 공동양육의 두가지 지표에 모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자녀의 영유아기에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를 많이 이용하였을수록 자녀의 아동기(초등 2학년)에 아버지가 어머니와 양육을 분담하는 정도인 양육분담률이 높아졌고($b=0.03$, 95% CI [0.005, 0.060]), 가족 유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0.09$, 95% CI [0.017, 0.173]).

〈표 3〉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 정도가 자녀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

독립변수	→ 종속변수	b	95% CI		
			하한	상한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	→ 아버지의 양육분담률	0.03	0.005	0.060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	→ 가족 유연성	0.09	0.017	0.173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	→	-0.00	-0.037	0.033	
아버지의 양육분담률	→ 자녀의 집행기능	0.01	-0.094	0.124	
가족유연성	→	0.07	0.034	0.096	
<i>간접효과</i>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	→ 아버지의 양육분담률	→	0.00	-0.003	0.005
	→ 가족 유연성	→	0.01	0.002	0.022

주: 수치는 비표준화계수임.

3.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자녀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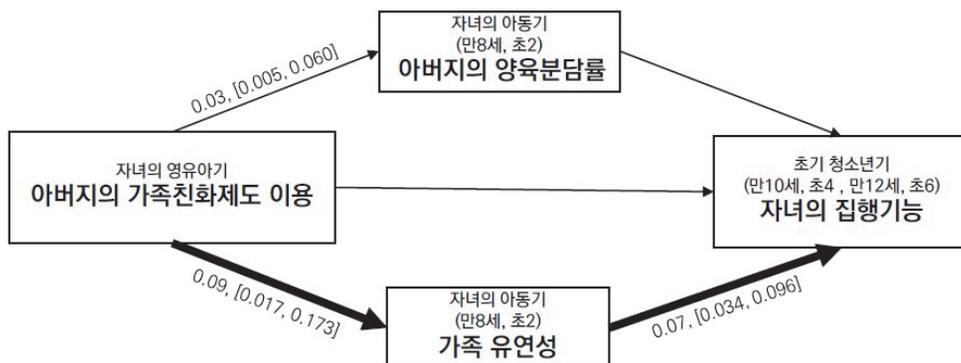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자녀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부모의 공동양육을 높임으로써 자녀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은 어머니 양육참여 정도와 자녀의 영아기 인지 검사 점수 등을 통제하였을 때,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집행기능에 직접적으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 공동양육이 자녀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공동양육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분담률은 자녀의 집행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가족 유연성은 자녀의 집행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07$, 95% CI [0.034, 0.096]).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부모의 공동양육을 높임으로써 자녀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아버지의 양육분담률을 통하여 자녀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간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 유연성은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자녀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0.01$, 95% CI[0.001, 0.012]). 즉, 아버지가 자녀의 영유아기에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를 많이 이용하였을수록 자녀의 아동기(초등 2학년) 때 가족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자녀의 초기 청소년

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초등4, 6학년) 자녀의 집행기능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자면,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은 아버지 양육분담률, 가족 유연성이라는 부모 공동양육의 양적, 질적 하위변인을 직접적으로 향상시켰으며, 그 중 가족 유연성은 어머니 양육참여 정도와 자녀의 영아기 인지 검사 점수 등을 통제한 이후에도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자녀의 집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제변수 가운데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유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b=0.22$, 95% CI [0.141, 0.297]), 아버지의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가족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0.01$, 95% CI [-0.016, -0.004]). 또한 자녀의 성별이 여아일 때 ($b=0.09$, 95% CI[0.047, 0.126]),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b=0.03$, 95% CI [0.006, 0.058]) 자녀의 집행기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연구 결과

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계수와 통제변수(자녀 성별, 자녀 영아기 인지 검사 점수,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양육참여 정도, 부의 직장 근무시간, 부모 맞벌이 여부) 결과는 생략함. 간접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해당 경로를 두꺼운 선으로 표시함. 제시된 수치는 비표준화 계수이며 대괄호 안의 수치는 부트스트랩 95% CI 임.

IV. 논의 및 결론

오늘날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함께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용노동부, 2020). 하지만 아버지의 가

족친화제도 이용이 아버지의 가족 내 역할 증대와 공동양육, 나아가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8차, 9차, 11차, 13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녀의 영유아기에 아버지의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이용 정도가 부모 공동양육과 자녀의 초기 청소년기 집행기능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과, 아동기 동안 부모 공동양육의 다양한 하위요인을 증진시킴으로써 자녀의 집행기능 발달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은 공동양육의 양적 측면인 아버지의 양육분담률을 증가시켜 가족 내 무급노동의 불평등한 분배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이 형성되고 양육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영유아기에 아버지가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한 것이 아동기 공동양육의 질적인 요소인 가족 유연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집행기능 발달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첫째, 자녀의 영유아기에 아버지가 가족친화제도를 많이 이용하였을수록 부모 공동양육의 양적 측면인 아버지의 양육분담률과 질적 측면인 가족 유연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친화제도의 시행 및 직장의 가족친화적인 분위기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던 기존의 연구(이숙현·권영인, 2009; 조희금, 2016)에서 더 나아가 아버지가 자녀의 영유아기에 가족친화제도를 실제 이용한 것이 자녀의 아동기에 부모 공동양육의 양적, 질적 측면을 모두 증가시킨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성역할 분업 체계의 변화를 이뤄낸 독일의 사례를 상기해볼 때(박채복, 2018), 우리나라 또한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을 적극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자녀의 영유아기에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은 자녀의 초기 청소년기 집행기능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족친화제도를 많이 이용하였을수록 부모 공동양육의 하위요인 중 가족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자녀의 집행기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여성이 일-가족 양립을 위하여 스스로 유연성을 추구하게 될 경우, 가족 내 무급노동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불평등한 현실이 오히려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 젠더 불평등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윤자영·임주리, 2014).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이 아닌 남성, 즉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으로 인해 증진된 가족의 유연성은 자녀의 집행기능에도 종단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경직된 직장문화 속에서 일과 가족생활 사이의 유연성을 추구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주체가 주로 여성인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남성의 가족친화제도 사용으로 인한 가족 내 유연성의 증가는 가족, 특히 자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집행기능은 자신의 인지, 행동, 정서를 조절하고 제어하는 자기-조절적 기능으로 정의된다(Blakemore & Choundhury, 2006). 집행기능은 전두엽이 급속히 발달하는 초기 아동기부터 청소년기에 주로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아동기(만 5세부터 만 9세)에 급격히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nderson, 2002; Best & Miller, 2010). 본 연구 결과는 자녀가 만 8세 때 부모의 유연한 공동양육 수행이 자녀의 집행기능 발달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부모는 자녀의 대인관계, 학교 적응과 학업성취 및 사교육 문제 등과 관련하여 자녀의 영유아기 때와는 다른 변화들을 맞이하게 된다(강희경, 2003; 정명숙, 2008). 이러한 변화들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데, 가족 유연성은 생애주기별로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하며, 개개인에게 최적의 기능과 생산성을 발휘하게 한다(Olson, Waldvogel, & Schlieff; 2019). 또한 Greenhaus와 Powell(2006)은 가족 유연성이 일과 가족역할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자원이라고 하였다. 즉, 가족 유연성이 높다는 것은 부모가 건강하게 일과 가족을 양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양육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반면, 가족 유연성이 낮은 경우 가족 내·외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고 이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비난, 갈등, 의견 충돌 등 상호간의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모 간 의견 대립이나 갈등이 아동에게 노출되면 아동은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 즉 집행기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Davies, Harold, Goeke-Morey et al., 2002). 아동·청소년기의 집행기능은 학업수행능력 뿐 아니라 학교적응 및 성격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장희선, 2022).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의 아동기에 부모 공동양육의 질적 요인인 가족의 유연성이 높을수록 자녀의 초기 청소년기 집행기능 발달을 향상시켜 자녀의 전반적인 적응에 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는 그 종류에 따라 이용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데이터가 수집되었던 시기인 2015년의 가족친화제도 이용률이 지금보다 낮아 선행연구(조희금, 2016; 최지은·김현경, 2019)의 방식과 같이 모든 제도의 이용을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가족친화제도의 유형별 이용 효과 분석함으로써 효과성이 높은 제도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낮은 이용률은 본 연구의 분석변수 간 높지 않은 상관관계로 나타났을 수 있다.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률이 급증하고 양육참여에 대한 아버지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최근의 현실을 반영한 연구를 요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아버지의 양육분담률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기보고결과이

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양육에 참여한 시간을 직접 측정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응답 기준이 다를 수 있음에 해석에 주의를 요하며, 보다 객관적으로 아버지 양육분담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차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의 특성상 이미 수집되어 있는 시기의 자료만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에 대한 질문은 8차년도에 처음 측정되었으며, 유연성은 9차년도 이후에 수집되지 않았다. 그러나 영유아기와 아동기는 부모와 자녀의 애착이 형성되며, 아동이 양육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고 초기 청소년기는 아동의 집행기능이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해당 시기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 정도와 부모의 공동양육, 자녀의 집행기능 간의 종단적 영향관계를 분석한 것에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자녀의 영유아기에 아버지가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한 것이 여러 통제변수의 영향을 통제할 이후에도 아동기 부모 공동양육의 양적, 질적 측면을 모두 향상시키고, 그 중에서도 가족 유연성을 통해 초기 청소년기 자녀의 집행기능 발달에 이르는 영향을 밝혀냈다는 것은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의 직·간접적 효과를 입증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 이는 현존하는 제도를 아버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과 동시에 이를 돕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이 부모 공동양육 수준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며, 그 중에서도 공동양육의 질적 요인인 가족 유연성은 자녀의 집행기능에 종단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 가족친화제도의 목적은 다양할 수 있으나 성평등을 중점적인 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성평등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가족친화제도의 핵심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남성의 양육참여 증진, 노동 및 가정 환경의 유연성 강화,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 등이 있다(이지영, 2019). 현재 우리 사회에는 남성은 노동자, 여성은 양육자라는 이분법적 역할 구분과 함께 가족친화제도는 양육자인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는 정부 기관에서 여전히 “모성보호제도” 혹은 “모성지원팀”과 같은 이름 하에 양육지원제도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성만 가족친화제도를 사용했을 때 가족 내·외에서의 성별 불평등이 강화된다는 역기능을 고려할 때, 제도의 이용자로써의 아버지를 더욱 강조함으로써 성

별화된 가족생활을 평등하게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김원정, 2018).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동시에 두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최근 개정 등(대통령령 제33077호, 2022.12.14., 타법개정)은 남성의 제도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 나아가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일정 기간 필수적, 자동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거나 남성의 이용기간을 여성보다 늘리는 방식 등으로 남성 이용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행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여성가족부고시 제2023-18호)에는 남성근로자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충분히 반영되어있지 않다. 오히려 중소기업형 ‘가’형에는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만 심사에 포함되어있고(남성 육아휴직 이용은 최대배점이 제한적인 가감점 항목에 포함되어있으며, 남성 근로시간단축은 미포함), 대기업형에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여성근로자의 그것과 동일한 배점이지만, 남성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이용률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남성의 가족친화제도 이용 실적을 별도 항목으로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 내 가족친화제도의 남성 이용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러 가족친화제도 중에서도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부모에게 가족시간을 지원하는 제도가 부모의 일-가족 양립과 아동의 웰빙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Gornick & Meyers, 2003). 특히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은 아버지로 하여금 주양육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동시에 어머니의 경력 유지를 지원함으로써 성별로 분화된 가족 역할을 재조정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버지가 주양육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기존에 아버지의 역할이 대부분 물리적 육아, 놀이 등에 치중된 나머지 자녀의 발달 및 복지에 대한 관리와 책임, 총괄을 의미하는 육아의 책임성 영역(예: 자녀가 다닐 교육기관, 받을 치료 등의 결정, 돌봄 일정 관리)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점(안수영·이명신, 2020; 유지영, 2014; Lamb, 2000)에서 큰 의미가 있다. 더불어 유연근무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이용은 이용자가 일을 지속하면서 일-가족 갈등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므로 유연성에 특히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가족친화제도의 다양한 종류 중에서도 가족시간을 지원해주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제도의 이용을 특히 독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족친화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직장 상사의 지원은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과 양육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성민정·원숙

연, 2018; 김진욱·강상준, 2018), 부서 내 남성의 가족친화제도 활용률을 상사 평가에 반영하거나(인사혁신처, 2017), 남성 임원들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을 일정 부분 강제하는 방식 등의 제도화(김진욱·강상준, 2018)를 통해서 남성의 가족친화제도의 이용을 터부시하는 분위기를 개선하고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 이용을 독려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과도한 업무 강도와 긴 근무시간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개선되어야 할 한국의 사회 문화적 특징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중앙일보, 2023.05.17), 정부는 남성의 성공적인 일-가족 양립은 개인과 가족의 웰빙을 높일 뿐 아니라 기업의 조직 생산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거시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가족친화제도의 활용이 기업에게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성민정·원숙연, 2018). 실제로 김혜원(2011)은 그의 연구에서 유연근무제와 단시간 근무제는 노동생산성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가족친화제도가 많을수록 이직률이 유의하게 감소하고, 제품과 서비스 품질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밖에도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족이 건강하고 가족의 구성원이 모두 행복할 때, 이것이 개인적 차원의 복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집중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음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산업별로 가족친화제도의 실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혀내고, 산업 부문별 차이를 고려한 세심한 개입 방안을 마련한다면(김원정, 2018), 오늘날 공공기관과 대기업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의 활용이 조직의 유형과 규모, 그리고 고용 형태에 따른 한계를 넘어 점차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만 강조하고, 책임에 상응하는 권리, 즉 부모권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송혜림·박정윤·이완정 외, 2009). 부모권은 자녀를 양육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려 받을 수 있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이재인, 2006). 특히 자녀의 영유아기는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애정과 환경의 질에 따라 아이의 나머지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뿐만 아니라(이경희, 2015) 부모 자신에게도 부모로서의 정체성과 자녀와의 장기적인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즉, 어린 시절에 부모와 자녀가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건강한 애착 형성을 도울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동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고 부모의 적응에도 도움을 준다. 따라서 돌봄 가치 실현과 부모권 보장의 수단으로서 가족친화제도가 제시되어야 한다(윤홍식, 2005). 나아가 현행법상 양육지원의 목적인 양육 부담 완화와 아동의 행복추구권 보장에 더하여 부모의 권리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예: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더불어 아버지의 부모권을 적극 보장하는 것이 아버지 자신의

행복감, 생활 만족도 등의 심리적 웰빙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들(강민재·최수찬·조영은, 2017; 최지은·김현경, 2019)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가족친화제도의 이용이 아버지 자신의 삶의 질 제고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홍보한다면, 돌봄 주체로서 아버지의 모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아버지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7438호., 2020.06.09., 일부개정]
 강민재·최수찬·조영은(2017). 기혼 근로자의 일-가정 전이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친화제도 유용성 인식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2, 119-145.
<http://doi.org/10.17997/SWRY.52.1.5>
- 강희경(2003).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31-37.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법률 제 17280호., 2020.05.1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2020). 맞돌봄 당연하지! 아빠의 육아휴직 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10200878
- 고용노동부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시행 2023.1.1.] [대통령령 제33077호, 2022.12.14., 타법개정]
- 김원정(2018). 젠더 관점에서 본 한국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주현·문영주(2010). 맞벌이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결혼생활 만족과 일 만족에 미치는 영향-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강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109-126.
- 김진욱·강상준. (2018). 가족친화제도와 분위기가 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경로분석:상사와 동료의 지원을 매개효과로. 사회보장연구, 34(1), 25-54.
- 김혜원(2011). 가족친화제도와 기업성과. 노동정책연구, 11(3), 1-24. <http://doi.org/10.22914/jlp.2011.11.3.001>
- 나성은(2014). 남성의 양육참여와 평등한 부모 역할의 의미 구성. 페미니즘연구, 14(2), 71-112
- 머니투데이(2022.04.22.). “지원금 준다고 애 낳겠나…韓 출산정책 문제있다” 뼈아픈 분석.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2115191718735>

- 박채복(2018). 독일 출산지원정책의 젠더적 함의. *통합유럽연구*, 9(1), 189-216. <http://doi.org/10.32625/KJEI.2018.16.189>
- 송현주(2014).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1), 121-137.
- 송혜림·박정운·이완정·성미애·서지원·진미정(2009). 부모역할 지원정책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6), 91-108.
- 성민정·원숙연(2018). 아버지 대상 가족친화제도 디커플링 인식 및 영향요인: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6(4), 157-188. <http://doi.org/10.24145/KJPA.56.4.6>
- 안수영·이명신(2020).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책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육아정책연구*, 14(1), 3-25. <http://doi.org/10.5718/kcep.2020.14.1.3>
-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18호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일부 개정). https://www.mogef.go.kr/nw/ntc/nw_ntc_s001d.do?mid=news400&bbtSn=709227
- 오성은·김한성(2020). 맞벌이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와 결혼만족도: 가사노동분담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7(4), 167-196. <http://doi.org/10.16975/kjfs.67.4.5>
- 유계숙·강수향·오아림·이주현(2011).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117-136.
- 유지영(2014). 아버지 자녀양육의 책임성(responsibility)에 관한 연구: 개념, 특성, 항목 구성. *사회복지정책*, 41(4), 19-37. <http://doi.org/10.15855/swp.2014.41.4.1>
- 윤자영·임주리(2014). 근로시간체제와 일가정 양립,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 윤홍식(2005) 가족정책의 성통합적 재구조화: 노동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일과 직장의 양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4), 291-319.
- 이경희(2015). 아동 인성 형성에 미치는 영, 유아기 양육환경의 영향력. *아동복지연구소 보고서*, 2015(1), 1-44.
- 이숙현·권영인(2009). 기업의 가족 친화적 문화와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가족과 문화*, 21(1), 1-28 <http://doi.org/10.21478/family.21.1.200903.001>
- 이재인(2006). 노동권과 부모권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보육정책. *가족과 문화*, 18(2).
- 이지영(2019). 일본의 출산정책의 변화와 젠더적 함의. *일본학보*, 118, 379-403 <http://doi.org/10.15532/kaja.2019.02.118.379>
- 이지원·최지은·김현경(2020). 부모 공동양육의 양과 질을 반영한 잠재프로파일분석과 집단 간 사회인구학적 특성, 학령기 아동 정서조절능력의 차이. *아동학회지*, 41(6), 95-110. <http://doi.org/10.5723/kjcs.2020.41.6.95>

- 인사혁신처(2017).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안. 세종: 인사혁신처.
- 임현주(202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공동양육, 성역할 가치가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2(3), 1721-1734.
- 장희선(2022). 초등학생 집행기능곤란의 변화궤적 및 특성과 예측요인: 성격유형, 미디어기기 중독 차이분석과 부모요인 예측요인. *교육학연구*, 60, 321-349.
- 정명숙(2008).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가정과삶의질연구, 26(6), 107-121.
- 정주원·조소연(2015). 맞벌이가구의 가사노동에 대한 공평인지와 불공평인지 집단별 가사노동분담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6(4), 717-729.
- 조희금(2016). 맞벌이가정 아버지의 근로시간특성과 가족친화제도가 자녀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4), 49-68. <http://doi.org/10.22626/jkfrma.2016.20.4.004>
- 중앙일보(2023.05.17.). "한국다운 것 버려라"... 韓 인구소멸 경고했던 英 교수의 팽폭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80723?cde=news_edit
- 최지은·김현경(2019).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13(2), 145-169. <http://doi.org/10.5718/kcep.2019.13.2.145>
- 최지은·이지원·김현경(2021). 어머니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과 이용이 맞벌이-공동양육(dual earner-dual carer) 잠재집단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육아정책연구*, 15(1), 55-79. <http://doi.org/10.5718/kcep.2021.15.1.55>
- 통계청(2023). 2022,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출생, 사망, 혼인, 이혼). 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00F&conn_path=12
- 홍예지·이순형(2017).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가족 응집성 및 가족 유연성의 관계: 아버지의 양육 부담의 조절효과. *육아정책연구*, 11(1), 105-125. <http://doi.org/10.5718/kcep.2017.11.1.105>
- Anderson, P. (2002). Assessment and development of executive function (EF) during childhood. *Child Neuropsychology*, 8(2), 71-82. <https://doi.org/10.1076/chin.8.2.71.8724>
- Best, J. R., & Miller, P. H. (2010).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executive function. *Child Development*, 81(6), 1641-1660. <https://doi.org/10.1111/j.1467-8624.2010.01499.x>
- Blakemore, S. J., & Choudhury, S. (2006). Development of the adolescent brain: Implications for executive function and social cogni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7(3-4), 296-312. <https://doi.org/10.1111/j.1469-7610.2006.01611.x>

- Blum, R., Astone, N., Decker, M. & Mouli, V. (2014). A conceptual framework for early adolescence: a platform for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t Medicine and Health*, 26(3), 321-331. <https://doi.org/10.1515/ijamh-2013-0327>
- Cohen, R. J., & Jay, R. (2005). *Exercises in psychological testing and assessment* (Vol. 2). McGraw-Hill
- Datta Gupta, N., Smith, N., & Verner, M. (2008). The impact of Nordic countries' family friendly policies on employment, wages, and children.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6, 65-89. <https://doi.org/10.1007/s11150-007-9023-0>
- Davies, P. T., Harold, G. T., Goeke-Morey, M. C., Cummings, E. M., Shelton, K., Rasi, J. A., & Jenkins, J. M. (2002). Child emotional security and interparental conflic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7(3), 27-41. <https://www.jstor.org/stable/3181513>
- Diamond, A. (2013). Executive func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4, 135-168.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113011-143750>
- Enders, C. K., & Bandalos, D. L. (2001). The relative performance of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for missing data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8(3), 430-457.
- Feinberg, M. E. (2003). The internal structure and ecological context of coparenting: A frame work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3(2), 95-131. https://doi.org/10.1207/S15327922PAR0302_01
- Gornick, J. C. & Meyers, M. K. (2003). *Families that work: Policies for reconciling parenthood and employment*. NY: Russell Sage Foundation.
- Greenhaus, J. H., & Powell, G. N. (2006). When work and family are allies: A theory of work-family enrichment.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1(1), 72-92. <https://doi.org/10.5465/amr.2006.19379625>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 Lamb, M. E. (2000). The history of research on father involvement: An overview. *Marriage & Family Review*, 29(2-3), 23-42. https://doi.org/10.1300/J002v29n02_03
- Little, T. D. (2013). *Longitudina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MacKinnon, D. P., Lockwood, C. M., & Williams, J. (2004). Confidence limits for the indirect effect: Distribution of the product and resampling method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9*(1), 99-128. https://doi.org/10.1207/s15327906mbr3901_4
- McKelley, R. A., & Rochlen, A. B. (2016). *Furthering fathering: What we know and what we need to know*. In APA handbook of men and masculinities. (pp. 525-549).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4594-024>
- McClelland, M., Leve, L., & Pears, K. (2016). Preschool executive functions in the context of family risk. In J. A. Griffin, P. McCardle, & L. S. Freund (Eds.), *Executive function in preschool-age children: Integrating measurement, neurodevelopment, and translational research* (pp. 241-257).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uthén, L. K., & Muthén, B. O. (1998-2017). *Mplus User's Guide* (Eighth Edition).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Olson, D. H. (2000).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Journal of Family Therapy, 22*(2), 144-167. <https://doi.org/10.1111/1467-6427.00144>
- Olson, D. H. (2010). *FACES IV manual*. Minneapolis, Minn.: Life Innovations.
- Olson, D. H., Waldvogel, L., & Schlieff, M. (201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An update.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11*(2), 199-211. <https://doi.org/10.1111/jftr.12331>
- Thompson, C. A., Beauvais, L. L., & Lyness, K. S. (1999). When work-family benefits are not enough: The influence of work-family culture on benefit utilization, organizational attachment, and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3), 392-415. <https://doi.org/10.1006/jvbe.1998.1681>
- Van Egeren, L. A., & Hawkins, D. P. (2004). Coming to terms with coparenting: Implication of defini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1*(3), 165-178.
- Zamarro, G., & Prados, M.J. (2021). Gender differences in couples' division of childcare, work and mental health during COVID-19.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19*, 11-40. <https://doi.org/10.1007/s11150-020-09534-7>

- 논문접수: 4월 4일 / 수정본 접수 5월 30일 / 게재 승인 6월 10일
- 교신저자: 김현경,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융합전공 교수, hyoungkim@yonsei.ac.kr

Abstract

Longitudinal effects of fathers' use of family-friendly policies in workplaces on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The mediating role of co-parenting

Danbee Han, Jieun Choi and Hyoun K. Kim

This study provided empirical evidence on the effectiveness of family-friendly policies(FFPs) by investigating whether fathers' use of FFPs, such as fathers' division of parental involvement and family flexibility, had a longitudinal effect on co-parenting an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s. Data from parents and children of 763 families from the 8th, 9th, 11th, and 13th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ere analyzed. Findings showed that fathers' use of FFPs during their children's preschool years increased both indicators of co-parenting during their children's childhood. In addition, family flexibility in childhood served as a mediator to the longitudinal effects of fathers' using of FFPs on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in early adolescence.

Keywords: Fathers' use of family-friendly policies, coparenting, children's executive function